

명성여학교의 설립과 운영(1931~1945)

- 근대불교 최초의 여성학교 조명 -

김은영*

• 목 차 •

I. 서언

II. 근대 불교여성의식의 형성

1. 여성교육운동의 사회적 배경
2. 교육제도의 변화

III. 명성여학교 설립과 운영의 제 문제

1. 초기 연혁의 몇 가지 쟁점
2. 설립목적과 교육과정
3. 운영의 주체와 활동

IV. 결어: 명성여학교의 불교교육사적 의의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 『大覺思想』 제32집 (2019년 12월), pp.277-307

한글요약

이 연구는 해방 이전 불교계가 설립하고 운영하던 명성여학교를 통해 근대 시기 여성교육에 대한 불교계의 의식과 역량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근대 불교계의 여성에 대한 교육이념을 살피기 위한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성여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밝혀, 당시의 사회 환경 속에서 어떠한 인물들이 불교계 여성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혔다. 둘째, 명성여학교와 근대불교 여성인식의 형성과정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지 고찰하였다.

명성여학교는 불교교육사에 있어 몇 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웃 종교계의 경우처럼 외국인 선교사와 같은 외부 세력과 자본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전통종교인 불교를 신앙하던 재가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였다는 자주성에 있어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최초로 정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불교계 최초의 중등학교로서 제도권 여성교육의 장을 열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명성여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여성 불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전환되었고, 불교교육이 공적영역으로 편입된 것이다.

주제어

여성교육, 명성여학교, 근대교육, 종교교육, 불교교육

I. 서언

교육이란 집단의 공동목적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적 활동이다. 교육에는 사회적 기반과 공동의식이 일정 정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명제 아래 해방 이전 불교계가 설립하고 운영하던 명성여학교를 통해 당시 여성교육에 대한 불교계의 의식과 역량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근대 시기에 설립된 불교계 사학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명진학교(明進學敎, 동국대학교의 전신)에 대해 집중되어 있었다.¹⁾ 최근 한국불교사 분야에서 불교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지만,²⁾ 여전히 불교종립학교와 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특히 근대 불교계 여성교육기관에 대한 학문적인 분석과 평가 작업은 매우 미미하였다. 여성학에서 있어서는 근대여성운동의 한 갈래로 소개되고, 불교학에 있어서는 조선불교여자청년회를 조명하는 과정에서 그 활동의 일환으로 소개되는³⁾ 정도였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교계의 학교교육은 한국불교사 측면 뿐 아니라 근대 교육사 및 여성사 측면에서도 필히 참구되어야 할 주제로 이번 연구를 통해 그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1931년 설립된 명성여자실업학원(明星女子實業學園)은 1935년 명성여학교(明星女學校)라는 명칭으로 정부로부터 인가 받은 최초의 정식 여성

- 1) 김순석, 「統監府 시기 佛敎界의 明進學校 설립과 운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 김혜련, 「식민지 고등교육정책과 불교계 근대고등교육기관의 위상: 중앙불교전문학교를 중심으로」, 『불교학보』 45, 불교문화연구원, 2006. ; 김광식, 「명진학교의 건학정신과 근대 민족불교관의 형성」, 『불교학보』 45, 불교문화연구원, 2006. ; 고영섭, 「동대 ‘전인 교육’ 백년과 ‘불교 연구’ 백년: 치밀한 사고력. 활발한 문장력. 넘치는 인간미의 구비와 실현」, 『불교학보』 45, 불교문화연구원, 2006 등.
- 2) 고영섭, 「불교계의 해인 -마산대학(1946~1967) 경영」, 『한국선학』 22, 한국선학회, 2009. ; 김은영, 「근현대 불교계 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특성과 과제」, 『불교학보』 87, 불교문화연구원, 2019 등.
- 3) 김광식, 「朝鮮佛敎女子靑年會의 창립과 변천」, 『한국근현대사연구』 7, 한국근현대사학회, 1997.

학교가 된다.⁴⁾ 당시 불교계 여성운동의 한 갈래가 교육 분야로 계승되었지만,⁵⁾ 그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 없다. 본고에서는 근대 불교계 여성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나타난 특수성을 명성여학교를 중심으로 살피는 이유는 불교계에서 여학교로는 최초로 정부 인가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명맥을 이어온 대표적인 여성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성여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밝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불교계 여성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둘째, 명성여학교의 설립과 운영이 근대 불교여성인식의 형성 과정과 관련이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명성여학교가 근대 불교교육사에 내포하고 있는 의의를 밝힐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근대 종교계 여성교육과 불교계 종립학교의 분화와 발전 과정에 대하여 고찰하고, 근대사 연구에 다양성과 균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동명의 학교가 평양에도 존재하였다. 평양 유점사 포교당의 포교사였던 김보련(金寶蓮)은 사립 조명학원(鳳鳴學院)을 설립하고 기존의 학습소 및 학원들을 1931년에 명성학교(明星學校)로 승격시킨다. 이 학교는 1945년 광복 무렵까지 활발히 활동을 지속한다. 김경집, 「일제하 30본산의 평양포교」, 『진법학연구』 9, 불광연구원, 2016, pp.104-105. 함북 라남에 명성여자학원(明星女子學院)도 있었다. <동아일보> 1925년 12월 18일자 3면, 「女子學友會創立」.

5) 1921년 7월에 설립된 경성여자문화학원은 정동에 있는 불교중앙포교소에서 설립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여성들에게 예술, 철학, 어학을 교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동아일보> 1921년 7월 10일자 3면, 「여자문화학원개설」. 이외에 <불교시보>(1936.7.1, 17면) 근하신년 란에 경성부 천연동(京城府天然洞)에 여자실업학교(女子實業學校) 교사(教師) 고충업(高忠業)과 그 옆에 경성부 천연동극락암(極樂庵) 주지 최법윤(崔法允)이 나란히 소식을 올린 것으로 보아 천연동에 사찰과 연계된 여자실업학교가 있었음을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에 대한 사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도권 교육에 편입의 시발은 명성여학교이기 때문에, 본고에서 명성여학교를 근대 불교 최초의 여성학교라고 밝힌 것이다.

II. 근대 불교여성의식의 형성

1. 여성교육운동의 사회적 배경

우리나라의 근대는 여성에 대한 인식과 담론이 이전의 시대와는 다르게 진행된 시기였다.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종교가 상당 부분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있다. 당시 한국사회에 근대화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서구의 종교, 동학과 같은 신흥민족종교 등이 여성 해방과 양성평등에 기여해왔다는 것이다.⁶⁾

개항 이후 한국사회는 계몽의 대상이었다. 서구의 선교사들에게는 사회제도와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이 계몽의 대상이 되었다. 민족운동의 측면에서도 자주적이지 못 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변화해야 할 대상이 스스로가 되었다. 특히, 종교계에서는 전근대적인 구습과 민간신앙을 저격하여 미신타파 담론이 일어났는데, 이 미신이 주로 여성과 관련된다는 통념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계몽의 주요 대상이 된다.⁷⁾ 미신으로 대표되는 전근대성의 주체로 여성이 소비된 것이다.

불교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남녀가 평등하다는 인식은 있었으나⁸⁾ 동시에 여성의 신행문화의 미숙함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여성이 불교를 믿는 이유는 수행이나 사회변혁을 위한 것보다는 개인과 집안의 기복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여성신도들 때문에 불교의 신행문화가 미신신앙처럼 변형되었다고 여긴 것이다.⁹⁾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가 가진 여성에 대

6) 김윤성, 「1920~1930년대 한국사회의 종교와 여성 담론: ‘미신타파’와 ‘현모양처’를 중심으로」, 근대한국종교문화의 재구성: 근대성의 형성과 종교지형의 변동Ⅱ,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p.500.

7) 김윤성, 「여성과 종교에 대한 근대적 담론의 한계와 효과」, 『종교문화비평』 1,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2, p.106.

8) 퇴경, 「불교와 여자」, 『조선불교월보』 4호, 1911.

9) 김광호, 「佛敎와 女性의 信仰」, 『佛敎』 67, 佛敎社, 1930, p.24. ; 김두현, 「迷信과

한 통념이 불교계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한 예로 볼 수 있겠다.

당시 사회는 여성이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종교적 이상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¹⁰⁾ 여성이 이루어야 할 인격의 이상은 따로 있고, 이는 남녀평등이나 여성해방과는 관계가 없었다. 이는 불교계 뿐 아니라, 천도교, 개신교, 천주교 같은 종교들도 마찬가지였다.¹¹⁾ 당시 사회적 관습이 종교관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이었다. 즉, 우리나라의 개화기 종교가 여성해방과 양성평등의 현실화와 근대화에 일정 정도 기여하였지만, 동시에 종교성을 여성성과 결부시키며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국한시킨 부정적 측면도 없지 않았다. 이 같은 경향은 종교계 학교의 여성교육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910년대에 들어서자 여성들은 스스로 여성교육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주요 논지는 남녀동등과 민족주의였다. 특히 현모양처를 양성하려는 기존의 교육을 비판하고, 남녀평등 사상을 갖춘 민족주의자를 이상적 여성으로 제시하고 실용적 교육을 강조하게 된다.¹²⁾

2. 교육제도의 변화

개항 이후 근대문화를 이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근대식 학교 교육도 등장하였다. 1883년 민간에 의해 세워진 원산학사(元山學舍), 1886년 정부가 미국인 교사 3명을 초빙하여 세운 육영공원(育英公院)과 미국 선교사가 세운 배재학당(培材學堂), 이화학당(梨花學堂) 등이 우리나라의 초기 근대식 학교였다.

文化], 『佛敎』107 1932, p.14.

10) 김광호, 위의 글, p.28.

11) 김운성, 「1920-1930년대 한국사회의 종교와 여성 담론: ‘미신타파’와 ‘현모양처’를 중심으로」, 『근대한국종교문화의 재구성: 근대성의 형성과 종교지형의 변동Ⅱ』,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p.522.

12) 이송희, 「한말, 일제하의 여성교육론과 여성교육정책」, 『여성연구논집』 16, 여성문제연구소, 2005, p.215.

갑오개혁(甲午改革)에 의한 신학제의 확립은 근대학교의 설립에 박차를 가해 한국의 교육을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하였다. 국가가 제도로써 구교육을 청산하고 현대식 교육을 맞아들인 것은 갑오개혁 이듬해인 1895년의 일이었다. 이 해에 관립 한성사범학교·외국어학교 등이 설립되었으며, 상공학교·법관양성소·광무학교·육군유년학당·전무학당 등의 실업계통 학교도 세워졌다.¹³⁾ 개화 이래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하여 설립된 선교주의 학교에서 근대교육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선교교육이 신학제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대교육의 시발점도 이때로부터 비롯되었다.¹⁴⁾

갑오개혁 전후로 많은 기독교계 학교들이 경성을 중심으로 설립되었고, 차츰 지방으로 퍼져나가 거의 전국화 되었다. 당시 인가된 사립학교는 2,250개였는데¹⁵⁾ 그 중 종교계 학교는 801개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1910년 2월까지 설립된 기독교계 학교의 종파별 통계를 보면 장로파가 501개교, 감리파가 158개교, 영국성공회(聖公會)가 4개교, 감리회(안식교)가 2개교, 종파 미상의 84개교, 각 파 합동이 1개교, 천주교 46개교로 신·구교회가 세운 학교는 모두 796개였는데 반해 불교는 5개교로¹⁶⁾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상과 같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들 종교계통의 학교들은 1894년 정부에 의한 교육개혁이 있기까지 근대교육의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1905년 을사늑약 체결로 교육의 주도권은 일본으로 넘어갔고 교육관계 법령도 그들에 의해 제·개정되었다. 이후 일제의 침략에 의하여 근대교육은 교육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대한 반발로 민족 감정과 국권회복을 이념으로 하는 민족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많

13) 이만규, 『조선교육사』 下, 을유문화사, 1959, pp.44-47.

14) 강돈구 외, 『종교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문화관광부·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p.7.; 고병철, 『한국 중등학교의 교과교육론』, 박문사, 2009, pp.99-100.

15) 이만규, 『조선교육사』 下, 을유문화사, 1959, p.104.

16) 이만규, 위의 책, p.107.

은 사립교육기관들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설립되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는 구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시기의 교육 운동은 국권의 수호를 위한 결의였으며, 동시에 생존을 위한 실력배양을 목적으로 하였다. 민중교육 운동은 보통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중등교육 내지 전문교육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었으며, 특히 여성교육과 기술교육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여성교육정책은 1895년 8월에 소학교규칙이 발표되면서 비롯되었으며, 1908년에는 고등여학교령이 발표되었다. 공교육에서의 여성교육의 출발이 통감부 치하에서 이루어지면서 여성교육정책은 심각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학교에서 여성교육은 일본의 요구에 따르는 방향으로 변질되어갔다. 국가의 흥망을 걱정하던 마음들이 교육구국사상으로 전개되어 전국적으로 사립학교가 많이 생겨났는데, 여성교육의 주요 부분은 선교사 등 종교단체들의 비율이 높았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교육기관의 설립은 개화와 더불어 시작된 일대 변혁 중 하나였다. 그리스도교계 교육기관인 이화학당(1886), 정신여학교(1887) 등이 연이어 설립되고, 다양한 교과과정이 운영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성경’ 관련 교과를 중요시하며 운영되었다.¹⁷⁾ 1906년 7월 진학신(秦學新), 김운곡(金雲谷) 등이 여자교육과 사회문명을 개진할 목적으로 여자교육회를 조직하였다. 이 학회의 부속학교로서 1906년 양규의숙(養閨義塾), 1907년 신학원(新學院)이 설립되었다. 그 외에 순수한 민간인 자본으로 설립된 여자학교로는 1906년 진명여학교, 명신여학교(숙명여학교), 1908년 3월에 동덕여학교가 있었다. 1910년까지 여자사학의 설립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기독교 여자선교사에 의한 학교, 진명이나 숙명 같은 귀족계급의 출자에 의한 학교, 동덕 같은 순수 민간인 출자에 의한 학교 등을 들 수 있다.

1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기독교문사, 1997, pp.194-199. ;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사, 1885~1945』, 연세대학교출판부, 1992, pp.24-25.

식민지 시대에 들어서 1911년 공포된 제1차 조선교육령은 여자고등보통교육에 관하여 식민여성과 부덕을 갖춘 여성 양성을 조항으로 규정하였다. 제2차 교육령을 통해 1920년대 후반에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서 각 지역에 공립여자보통고등학교들이 설립되었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 공포로 여자고등보통학교의 명칭이 고등여학교로 바뀌었고, 1943년 교육령에서는 전쟁 인력 동원을 위해 교육연한이 줄면서 여학교의 연한도 줄어들었다. 황국신민여성을 양성하려는 일제의 교육정책들이 여성교육의 제도와 내용을 좌우한 것이다.¹⁸⁾ 1935년에 6년제 정식인가와 1938년에 고등과 인가를 받은 명성여학교 역시 1930년대부터 일제의 황국신민양성이라는 교육사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것이다.¹⁹⁾

III. 명성여학교 설립과 운영의 제 문제

1. 초기 연혁의 몇 가지 쟁점

명성여학교의 후신인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고등학교는 역사와 설립자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1동 238의 1번지에 위치한 동대부여고는 대한불교 조계종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에서 경영하는 학교이다. 1930년 6월 20일 조선 불교청년 동맹의 발의와 쌍계사, 다보사의 후원으로 보통과 수업 연한 2년제의 명성학원을 설립하였다. 종로구 수송동 태고사(지금의 조계사) 경내,

18) 이송희, 「한말, 일제하의 여성교육론과 여성교육정책」, 『여성연구논집』 16, 여성문제연구소, 2005, pp.216-217.

19) 당시 조선여자교육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조선의 사정을 풍화(風化)시키기 위한 황국신민으로서의 부녀자 교육이었다. 이만규, 『조선교육사』 下, 을유문화사, 1959, pp.216-217.

보성중학교 구교사 일부를 빌려 개교하여 서복주(석전)여사가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여 1933년 3월 18일 제1회 졸업생 8명을 배출하였다.

1933년 6월에 옹희 3년(서기 1919년)에 설립한 승동여학교勝洞女學校와 병합하여 2년제 명성여학교로 인가를 받았으며 초대 교장에 최범술 스님이 취임하였다. 명성여자중고등학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중등교육 불교종립학교의 효시이다. 1937년 6월 각황사覺皇寺로 교사를 이전하였고, 1939년에 수업 연한을 3년으로 연장하였다. 1945년 광복이 되고 9월에 종로구 관수동으로 교사를 이전하였다.²⁰⁾

현재까지 정식으로 학교사가 편찬된 바 없으므로 위의 내용이 학교측에서 발표한 유일한 공식적인 초기 연혁이다. 학교의 후신인 동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여자중·고등학교도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의 누리집에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명성여학교의 초기 연혁에 있어 확인이 필요한 몇 가지 쟁점들이 있다. 해방 이전 학교의 어려운 사정과 수차례의 이사로 사료들이 상당 부분 유실된 탓이 크다. 현재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도 정리가 필요하다. 위의 내용 중 역사적 사실과 어긋나는 것들을 사료를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

1) 개교 및 정식인가 시기

위의 기록에서는 설립 시기를 1930년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개교 준비를 위한 기간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명성여학교의 전신인 명성여자 실업학원은 1931년 4월 10일에 개원하였다.²¹⁾ 간이학교로 4년 여간 운영을 지속하다 명성여학교라는 교명으로 정부의 인가를 받고 정규학교가 된 시기는 1935년 6월 3일이다.²²⁾ 실업학원에서 학교로 변모하는 과정에

20)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법사단, 「설립자와 학교 소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여자중·고등학교」, 『선지식』, 2005, p.62. 『가산 불교대사람』의 ‘명성여자고등학교’ 및 ‘명성여자학원’의 설명에도 유사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가산 불교대사람』 6,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원 출판부, 2004, pp.325-326.

21) <동아일보> 1931년 4월 2일자 4면, 「佛敎女子靑年會 女子實業學校設立」.

서 운영주체는 경성여자동맹의 간부들이었다. 이를 통해 명성여학교는 명성여자실업학원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즉, 학교의 연원은 명성여자실업학원의 1931년 개원으로부터 시작되고, 학력을 인정받는 정식학교로서의 개교는 1935년 명성여학교 인가부터라고 정리할 수 있다. 명성여학교로의 인가는 불교계 여성교육기관이 사회 제도상으로 인정을 받아 승격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동시에 근대불교 중 등과정 여성교육기관 중 최초로 공교육기관의 시발이 되었다는 의미도 있다.²³⁾

그러나 현재까지도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는 명성여학교가 1933년 6월 7일에 인가를 받았다고 알리고 있다.²⁴⁾ 반면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의 경우 명성여학교 설립인가 시기를 1936년 5월 20일로 기록하고 있다.²⁵⁾ 명성여학교의 명맥을 잇는 학교들 사이에서도 개교시기를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문제는 필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 규모의 확장과 학제 개편

1931년 개원한 명성여자실업학원은 운영을 이어나가며 여러 학교와 학원을 흡수한다. 앞서의 자체 사료에서는 승동여학교와 1933년에 병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1934년에 합교하였고, 또한 1935년에는 창명학교(唱明學校)와 자하학원(紫霞學院)도 명성실업여자학원으로 합해

22) <동아일보> 1935년 6월 6일자 2면, 「明星女子實業 學校로 認可」, 《佛敎時報》 1호(1935 8), 「明星學校認可」.

23) 명성여학교 보다 먼저 정부 인가를 받은 학교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1931년 정식학교로 승격된 평양의 명성학교가 있다. 김경집, 「일제하 30본산의 평양포교」, 『전법학연구』 9, 불광연구원, 2016, p.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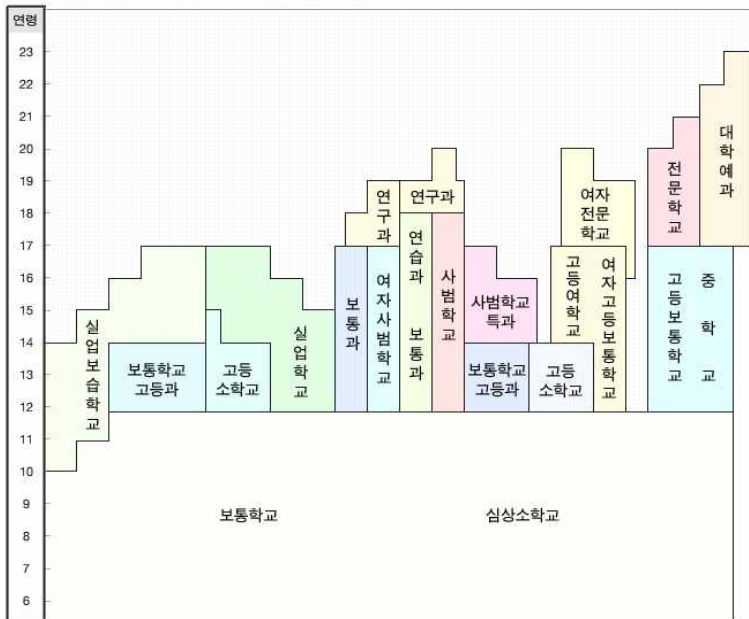
24)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 학교연혁, <http://donggukgirls.sen.hs.kr/19222/subMenu.do> (2019.10.22 검색)

25)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 학교연혁, <http://donggukgirls.sen.ms.kr/74794/subMenu.do> (2019.10.22 검색)

졌다.²⁶⁾ 1931년 개원 이후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운영을 이어나가며 주변의 학교들을 흡수하여 규모가 확장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식인가를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명성여학교가 인가를 받은 1935년에도 중앙교무원에 재정 지원을 요청한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설립 초기의 어려움을 딛고 정식인가 즈음에는 어느 정도 학교운영이 정상화되었던 것이다.

1931년 개원과 1935년 정식인가 사이의 학제의 변화에서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당시 1922년 제2차 교육개정령이 발표되어 1938년까지 유지되었고, 학제일람은 다음과 같았다.

■ 제2차 교육개정령에 의한 학제도(1922)



27)

26) <동아일보> 1935년 6월 6일자 2면, 「明星女子實業 學校로 認可」

27) 서울교육박물관, https://edumuseum.sen.go.kr/edumuseum/html.do?menu_idx=114 (2019.10.30 검색)

1931~1935년 사이의 명성여자실업학원은 학제일람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간이학교였음을 다시금 확인 가능하다. 1935년 인가를 받은 후 명성여학교의 학생모집 공고를 보면 자격사항으로 보통학교 졸업을 명기하고 있다.²⁸⁾ 그렇다면 명성여학교는 현재 기준 중학교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알 수 있다.

3) 역대 원장과 교장

학교운영의 방향은 관리자의 성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 원장과 교장의 면면을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가 보유한 해방 이전 역대 교장명단은 다음과 같다.

1930년 6월 20일 徐福珠(石田)女史가 初代 院長
 1933년 3월 18日 第二代 金尙昊 院長 就任하다.

그런데 별도의 연혁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보이는데, 앞서의 기록과 상당히 다른 내용들이 등장한다.

1930년 6월 20일 초대 원장으로 서복주 취임
 1932년 5월 30일 제2대 원장 김광호 여사 취임
 1933년 6월 7일 초대 교장 최범술 스님 취임
 1936년 2대 교장 김수선 여사 취임

앞서 제시한 학교 측의 자체 기록에 따르면 명성학원이었던 1930년 당시 초대원장은 서복주(석전)여사로 드러난다. 서복주여사에 대한 단서는 1932년 경성여자동맹과 관련한 기사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감사위원으로 서석전과 김광호의 이름이 함께 명단에 올라있다.²⁹⁾

28) <동아일보> 1936년 3월 4일자 4면, 「各校入學須知」.

다음으로 2대 원장이 김상호(金尙昊)와 김광호(金光浩) 중 누구인지 밝혀보자. 김상호는 만당의 일원이었고, 중앙불전 이사장을(1932~1937) 지낸 인물이다. 당시 불교청년회와 명성학원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불교청년운동의 중심인물이었던 김상호가 명성학원에서 원장 활동을 했다고 해도 이상한 시기는 아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인 1932년 5월 30일에 김광호여사가 원장으로 취임했다는 별도의 학교 자체 기록이 있다. 김광호는 조선여자불교청년회와 명성학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佛敎女盟의 文敎部長員兼明星學院院長의 雙兵符를 찬’ 인물이라는 기록이 있다.³⁰⁾ 상이한 두 내용을 종합하면 김상호와 김광호의 원장 활동 시기가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1933년 김상호 원장에 대한 기록은 김광호에 대한 오기일 가능성이 높다.³¹⁾

명성여학교로 인가 당시 초대 교장은 최범술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인가 시기가 1935년인 것이 밝혀졌으므로 1933년의 교장이 다른 인물이거나 혹은 1933년부터 최범술이 학교장이었을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으며, 혹은 전혀 잘못된 기록일 수도 있다.

또한 2대 교장인 김수선(金水先) 여사는 1931년에 ‘明星學院의 庶務部長’, 1932년 경성여자동맹 임원명단에서 ‘文敎部長’으로 나타난다.³²⁾ 김수선은 부산 불교계와 여성계에서 활동하였던 인물이다. 불교계에서는 불교여자청년동맹 간부, 명성여자실업학원 교사 및 서무부장, 경성여자청년동맹 문교부장 등의 활동을 하였다.³³⁾

앞서의 기록들을 통해 몇 가지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 첫째, 초기 명성

29) <우리 뉴스>, ‘京城女盟의 新役員’, 『금강저』 20, 1932.12.

30) 『佛敎女盟鬪士諸氏의 面影』, 『불교』 88, 1931, p.40.

31) 학교 자체 기록 외에는 김상호와 명성여자실업학원의 관계에 대한 사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尙과 光의 자형이 유사하여 기록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지만, 昊와 浩의 자형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학교 측의 기록을 무시할 수만도 없다. 이 문제는 추후 더 참구할 여지가 있다.

32) 『佛敎女盟鬪士諸氏의 面影』, 『불교』 88, 1931, pp.39-40.

33) 김광식, 『朝鮮佛敎女子青年會의 창립과 변천』, 『한국근현대사연구』 7, 한국근현대사학회, 1997. p.121.

학원의 주요 운영 구성원은 경성여자동맹 임원이며, 최범술 교장 취임을 통해 중앙불교계의 청년운동과도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상의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초기의 원장과 교장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명성여자학원 1대 원장 서복주(1930.6.20.~1932),
 2대 원장 김광호(1932.3.17.~1933.6.13.)
 명성여학교 1대 교장 최범술(1933.6.14.~1938.??)
 2대 교장 김수선(1938.1.?~1945?)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은 남겨져있다. 최범술의 재임기간, 그리고 김수선의 퇴임 시기의 확정은 향후 추가 사료 발굴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³⁴⁾

4) 학교의 위치

명성여학교의 지리적 위치 역시 당시 운영의 제반 사정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앞서 제시한 기록에는 “1930년 종로구 수송동 태고사(지금의 조계사) 경내, 보성중학교 구교사 일부를 빌려 개교”, “1937년 6월 각황사覺皇寺로 교사를 이전”, “1945년 광복이 되고 9월에 종로구 관수동으로 교사를 이전”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 부분 역시 사료를 바탕으로 침체하게 확인해 볼 문제이다.

먼저 1930년에 지금의 조계사(수송동 4번지) 대웅전 자리에는 보성고 등보통학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태고사란 명칭은 존재하지

34) 해방 이후 첫 교장인 허하백(許河伯)은 학교 자체 기록에 따르면 1947년 3월 10일에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의 기사에 따르면 1946년에 11월 당시 허하백이 이미 교장으로 활동 중이었으며, 허하백 이전에 김수선이 교장이었던 것도 드러난다. <자유신문>, 「明星女校 정식 인가」(1946.11.11.); <경향신문>, 「明星女校女中으로」(1946.11.13.)

않았다. 1927년에 보성고보가 종로구 혜화동으로 이전하여 건물이 비워지면서, 지근거리의 각황사에 입주해있던 교무원, 불교사, 불교청년회 등의 사무실이 구 보성고보 교사(校舍)로 입주하였다.³⁵⁾ 불교청년회와의 관계를 통해 여자청년회도 같은 건물의 한편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명성여자실업학원을 시작하게 된다.³⁶⁾

1920~30년대 중앙불교계 포교의 중심처였던 각황사(수송동 82번지)는 1938년 구 보성고보 자리(校舍)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전한다.³⁷⁾ 건축 기간을 고려하면 1937년에 이미 구 보성고보 교사를 허물었을 것이고, 그 건물에 입주해 있던 명성여학교 역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미 1936년부터는 지금의 조계사 뒤편인 보성사 자리로 교사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³⁸⁾ 1937년 여름 무렵부터 헐리는 건물로 인한 교사 문제가 공론화 되었다.³⁹⁾ 1938년 새해에는 추운 겨울에 교사가 없어 힘든 사정과 함께 새로운 곳을 찾거나 지으려는 김수선 교장의 호소도 이어진다.⁴⁰⁾ 다행히 같은 해 명성여학교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은 기록이 보이는데,⁴¹⁾ 새로운 주소는 수송동 82번지였다. 구 고성보고 자리로 이전하여 비어 있는 각황사 자리로 입주한 것이다.

즉, 1930~36년 동안은 구 보성고보 교사(수송동 4), 1936~37년은 보성사(수송동 44), 1938년부터는 구 각황사(수송동 82)로 학교의 위치가 변하였다. 거듭 되는 이전은 명성여학교의 의지가 아니었다. 이와 같은

35) 김광식, 「각황사의 설립과 운영」, 『대각사상』 6, 대각사상연구원, 2003, p.27.

36) <삼천리> 제3권 12호, 1931년 12월 1일, 「前衛 女性團體 訪問記, 佛敎女子青年會의 陣形 -장차 진전에 조직을 확장한다고 한다」

37) 김광식, 위의 글, p.30.

38) 京城府 壽松町 四四 주소로 明星學校가 불교시보 창간1주년 축전(1936.7.1, 3면)과 2주년 축전(1937.8.1, 6면)을 보내온 기록이 있다.

39) <동아일보> 1937년 8월 4일자 2면, 「俊才訓育卅年에 搖籃은 늙어 撒毀!」.

40) <동아일보> 1938년 1월 4일자 10면, 「집 없어서 서름받는 명성실업학교」.

41) 京城府 壽松町 八二 주소로 明星學校가 불교시보 창간3주년 축전을 보내온 기록이 있다. <불교시보>(1938.6.1., 6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慶北佛敎》 37호(1940.8.1.)의 「朝鮮佛敎와 緣故 김훈 明星學校의 曙光」 기사를 보면 신설동에 교사 부지를 매대한 기록이 있는데, 실제로 이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통해 당시 중앙불교계의 사정에 따라야 하는 명성여학교의 처지를 알 수 있고, 동시에 불교계와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름만 남기고 사라진 다른 불교여성교육기관들과 명성여학교를 비교하자면, 학교 운영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중앙불교계가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된 것이다.

2. 설립목적과 교육과정

명성여학교의 전신인 명성여자실업학원의 설립목적은 여성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교육하여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이었다.⁴²⁾ 이러한 교육목적은 다음의 결의에서 더욱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明星女子實業學園을 發起하게 된 것은 勿論朝鮮女子의 實業教育을 目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佛敎人으로서 또는 佛敎의 一機關인 佛敎女子青年會로서 明星女實을 發起한 初志는 朝鮮女子의 實業 教育을 爲 하는 同時에 그것을 佛敎事業으로 하자는 것이 重要한 企圖었다⁴³⁾

1931년 개교 당시 명성여자실업학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⁴⁴⁾

- 정원: 200명
- 과별(科別): 본과(本科, 2년 졸업), 연구과(研究科, 2년 졸업), 별과(別科, 1년 졸업), 전수과(專修科, 6년 졸업) 등 외 四과
- 직업과목: 양복(洋服), 자수(刺繡), 편물(編物), 세탁(洗濯), 할팽(割烹), 염색(染色) 등의 각 과목, 이외 보통학과
- 입학금: 1원

42) <동아일보> 1931년 4월 2일자 4면, 「佛敎女子青年會 女子實業學校設立」.

43) 《佛敎》 90호(1931.12)「明星女實에 對한 青年女盟의 悲壯한 決議」, p.45.

44) <동아일보> 1931년 4월 2일자 4면, 「佛敎女子青年會 女子實業學校設立」.

- 수업료: 매월 1원
- 본과: 보교 졸업생
- 연구과: 고보 졸업생
- 별과: 보교 입학에 연력 초과자
- 전수과: ‘팡’을 위하여 직업 전선에 나서려는 이
- 책임선생: 김광호, 박한표, 김수신, 윤덕경, 김태흡 등 오인

정원을 200명이라고 공고했지만, 실제 재학생은 40여명 정도였다.⁴⁵⁾ 실제로 같은 해 학생을 추가로 모집했다.⁴⁶⁾ 이듬해 즈음에는 직원 12인, 생도 148명, 가정과 7명, 보통과 33명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⁴⁷⁾ 규모 면에서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선 것이다. 학교 자체 기록에 따르면 졸업생은 1933년 8명, 1934년 21명, 1935년 23명, 1936년 26명, 1937년 25명, 1938년 30명, 1939년 17명, 1940년 42명, 1941년 33명, 1942년 80명, 1943년 85명 졸업(19명 2년 수료), 1944년 85명 졸업(19명 2년 수료), 1944년 230명 졸업, 1945년 88명 3년 수료 등으로 나타난다.

한편 1935년 6월 3일부로 명성여학교로 인가를 받을 당시의 교육목적과 교육과정에 대한 사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실업학원을 운영하던 중에 인가를 받아 승격된 것이니 교육목적은 재설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신 1936년 학생 모집 기사를 통해 몇 가지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⁴⁸⁾

- 人員. 高等科 第一學年 約 六十名 第二學年若干名
- 資格. 普通學校卒業者
- 出願. 四月五日까지
- 科目. 國語, 算術
- 期日. 四月六, 七日

45) <동아일보> 1931년 5월 19일자 2면, 「李忠武公墓所問題로 擴大되는 社會的反響」.

46) <동아일보> 1931년 8월 29일자 4면, 「明星實業學院 各科生徒增募」.

47) 「財團法人 朝鮮佛教中央敎務院教育及布敎에 關한 報告」, 『韓國近現代佛教資料全集』 66, p.270.

48) <동아일보> 1936년 3월 4일자 4면, 「各校入學須知」.

- 場所. 市内壽松洞本校

같은 해 입학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등과를 증설하고 야간 고등과까지 설치하였다.⁴⁹⁾ 그리고 이 고등과는 1938년 5월에 정식 인가를 받았다.⁵⁰⁾ 입학난이 있었다는 것은 정원보다 입학 희망자가 많았다는 것이고, 때문에 위의 과목(科目)은 시험과 관련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시험과목의 명칭만으로 학교의 교육과정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전에 비하여 실무 위주의 직업교육이 다소 줄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는 일제가 3·1운동 같은 민족적 저항을 방지하려고 문화정치로 식민지 정책을 수정한 때였다. 교육에 있어서는 준거주의(準據主義)에 입각한 제2차 조선교육령이 도입되었다. 당시 고등보통학교 수준 학교급의 과목은 수신, 한문, 외국어, 역사지리, 수학, 박물, 도화, 실업, 창가, 체조 등으로 사설 실업학원의 교과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명성여학교 역시 이러한 사회적 변화 아래 놓여있었다. 실업학원에서 정식 학교로 인가를 받고, 고등과의 증설과 인가까지 받으며 명성여학교의 교육은 기존의 실업교육에 인지교육을 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3. 운영의 주체와 활동

개항 이후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불교를 신앙하는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전국적으로 많은 불교여성단체가 있었지만, 일제하 불교여성청년운동의 최초이자 중심단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은 조선불교여자청년회(朝鮮佛敎女子靑年會)라 할 수 있다. 조선불교여자청년회에 대해서는 다행히 상당히 연구가 진행되어⁵¹⁾ 단체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다.

49) <동아일보> 1936년 4월 1일자 2면, 「明星女學校 高等科增設」.

50) <동아일보> 1938년 5월 16일자 2면, 「明星女學校에 高等科認可 私學界에 又盛事」.

조선불교여자청년회(이하 여자청년회)는 1922년 4월경에 창립되었다. 이 단체는 여성운동의 구도에서 여성불자들에게 지식을 계발시키고 불교 교리를 보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강연회, 토론회, 부인 강좌 등이 주된 활동이었다. 여자청년회가 창립된 1920년대는 여성운동은 남녀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민족주의자로서의 여성을 이상향을 설정하고, 그러한 인물을 양성하기 위해 실용적 교육을 강조했던 시기이다. 그러나 이 즈음에는 여성운동이 성장 동력을 잃고 퇴색하던 시기이기도 하다.⁵²⁾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 창립된 여자청년회는 주요 사업으로 여성교육에 가장 힘쓴다.

당시 서울 서간동에 있던 석왕사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여 회관으로 사용하던 여자청년회는 같은 곳에서 1922년부터 능인여자학원(能仁女子學院)도 경영한다. 여자청년회의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능인여자학원은 초등 수준의 기관이었으며, 교장은 여자청년회 회장 우봉운이었다. 여성불자였던 가정부인들을 대상으로 교양 및 불교교리 등을 교육하였다.⁵³⁾ 여타 여성운동회에서 운영한 여성교육의 방향과 비슷하였지만, 추가로 불교교육을 실시한 것이 차이점이었다.⁵⁴⁾ 하지만 1925년 봄부터 능인여자학원의 경영이 서울의 일본 사찰 서본원사의 경성병원으로 이전된다.⁵⁵⁾ 주요 사업이었던 여자학원의 경영권 상실로 추론해보면 여자청년회의 활동력이 상당히 소진되었을 것이다.

이후 1929년 조선불교청년회의 재조직 활동과 더불어 대자유치원 보조 중심으로 여자청년회도 재기의 움직임을 보인다.⁵⁶⁾ 그들은 불교 일요학

51) 김광식, 「朝鮮佛敎女子靑年會의 창립과 변천」, 『한국근현대사연구』 7, 한국근현대사학회, 1997.

52) 박혜란, 「1920년대 여성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pp.166-175.

53) <동아일보> 1922년 10월 12일자 3면, 「여자강습회」.

54) 김광식, 「朝鮮佛敎女子靑年會의 창립과 변천」, 『한국근현대사연구』 7, 한국근현대사학회, 1997. p.103.

55) 《조선불교》 18호(1925.10), 「能仁女子學員移轉」.

56) 김광식, 「朝鮮佛敎女子靑年會의 창립과 변천」, 『한국근현대사연구』 7, 한국근현대

교, 불교 부인강좌, 재봉학원의 신설 등 불교를 통한 여성들의 지식계발에 여전히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⁵⁷⁾ 특히 신설된 재봉학원은 1931년 명성여자실업학원의 설립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여자청년회는 불교청년운동이 총동맹체제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1931년 6월경에 조직체를 불교여자청년동맹으로 변경한다.⁵⁸⁾ 조직의 체계와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구심점이 되는 인물들도 상당히 교체된다.⁵⁹⁾

새로운 임원들⁶⁰⁾ 역시 실업학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지만, 개교한 해부터 경영난에 시달려서 비불교계 인사가 학교를 인수하려 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다.⁶¹⁾ 이듬해 명성여자실업학원의 문제는 조선불교청년총동맹 전체대회의 결의사항과 조선불교선교양종 제4회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한다. 다음 해에도 명성학원 유지비에 대한 건의안이 조선불교청년총동맹을 통해 제5회 총회에 접수되었고, 경비 부족분을 31본산에서 동정을 구하도록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못

사학회, 1997, pp.112-114.

57) 《불교》 65호(1929.1), 「佛敎女靑發會式」.

58) 김광식(「朝鮮佛敎女子靑年會의 창립과 변천」, 『한국근현대사연구』 7, 한국근현대사학회, 1997)이 이미 지적하였듯이 총동맹으로 조직체를 변경한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다르다. 《삼천리》 제3권 12호, 1931년 12월 1일, 「前衛 女性團體 訪問記, 佛敎女子靑年會의 陣形 -장차 전선에 조직을 확장한다고 한다 -」에 따르면 1931년말에만 하여도 아직 연합단체는 없고, 조선불교청년총동맹에 부속되어 내부조직도 총동맹의 강령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때에도 명성여학교라는 명칭을 볼 수 있는데, 명성학원, 명성여자실업학원, 명성여학교 등의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9) 여자청년회가 운영하던 능인여자학원 시절과 불교여자청년동맹이 구심이 된 명성여자실업학원 설립 당시의 인물들의 구성이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두 학원 간의 연원이 이어졌다고 확정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주요인물, 교육목표 등에 대하여 더 연구가 필요하다. 능인여자학원의 원장은 우봉운이었다. 명성여자실업학원의 교사는 김광호, 박한표, 김수선, 윤덕경, 김태흡 등이었다. 김광호와 김수선 정도만 두 학교 모두에 연결되는 인물이었다.

60) 정귀인(鄭貴寅), 김숙경(金淑卿), 김일엽(金一葉), 김수선(金水先), 김광호(金光浩), 최순자(崔順子) 등이 그 인물들이다. 「佛敎女盟鬪士諸氏의 面影」, 『불교』88, 1931, pp.37-41.

61) 김광식, 「朝鮮佛敎女子靑年會의 창립과 변천」, 『한국근현대사연구』 7, 한국근현대사학회, 1997. pp.120-122.

했고, 1934년에는 학원의 교사 김수선이 학원의 유지비 문제를 해결하려고 순회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운영의 주체는 여성들이었지만, 동맹관계를 맺고 있던 조선불교청년총동맹도 일부 의무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²⁾ 이 때문인지 1935년경부터는 총동맹과 경성여자동맹⁶³⁾에서 학교를 공동경영하게 된다.⁶⁴⁾

한편 명성여자실업학원이 1935년 명성여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을 때, 교장은 최영환(최범술)이었다.⁶⁵⁾ 그 전의 여성원장들과는 다르게 만당의 일원으로 불교청년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던 남성인 최범술이 교장으로 취임한 것을 보면, 이미 지적되었던 명성여학교와 조선불교청년총동맹과의 관계성을⁶⁶⁾ 다시금 확인 가능하다. 여성들만의 단독 운영의 한계로 남성 단체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유추할 수 있다.

정식 인가 후에도 명성여학교는 계속 경영난에 시달렸다. 이런 사정은 1935년 재단법인 교무원의 평의원회 회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당시 회의록에는 명성학교 외에 중앙불전과 보성고보에 대한 결의사항도 있는데, 명성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지원의 규모가 크고 시기도 꾸준하게 이어졌다.⁶⁷⁾ 교무원과 명성여학교는 느슨한 관계에 놓여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때부터 불교총동맹의 활동부진이 경성여자동맹으로도 이어져 점점 공식적인 기록도 사라진다. 경성여자동맹이라는 단체명이 1939

62) 김광식, 위의 글, pp.122-123.

63) 불교여자총동맹은 후에 1932년 경성여자동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김광식, 위의 글, p.124.

64) 《一光》5호(1935 10), 「教友의 近況과 所感」의 朴允進 서술문.

65) 1933년 4월부터 조선불교청년총동맹 중앙집행위원장이었던 최범술은 1933년 6월 14일에 명성여학교의 초대교장으로 취임했다고 한다. 1938년 5월 11일에 명성여학교 고등과 인가에 대한 기록이 효당의 연보에 기록되어 있다. 채정복 편, 『효당 최범술 문집 1권: 논문·기고문·연보』, 민족사, 2013, pp.32-33. 그러나 1938년 1월 4일에 기사에 학교의 교장이 김수선인 것을 보면, 1938년까지는 적어도 효당이 직간접적으로 학교와 관련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66) 김광식, 위의 글, pp.122-123.

67) 「財團法人朝鮮佛敎中央敎務院 第十三回定期評議員會會議錄」, 『韓國近現代佛敎資料全集』 66, p.9.

년도에도 나타나지만⁶⁸⁾ 그 즈음은 총동맹도 침체 및 재기의 구도에서 일제에 협조하고 있었던 점을⁶⁹⁾ 고려해볼 때 경성여자동맹도 기본적으로 총동맹과 비슷한 현실인식을 하였을 것이다.⁷⁰⁾

1935년 이후로는 동맹 등의 단체와 학교가 관련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간혹 보이는 학교 관련 기록에서도 교장인 김수선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1935년부터 해방 전까지 학교 운영의 주체는 경성여자동맹이라기보다는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로서 교장 등이 주축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당시에 학교를 운영하는 별도의 법인체는 없었다.⁷¹⁾

그 와중에 불교계 행사에는 꾸준히 참여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⁷²⁾ 불교계와의 인연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위한 기부,⁷³⁾ 부인회의 가장행렬에 참여하여 체조공연,⁷⁴⁾ 사립학교 초등연합대운동회 등과 같은 학교 간 연합행사에도 참여한 기록이 있다.⁷⁵⁾ 1940년에도 기록이 일부 발견되고,⁷⁶⁾ 해방 이후 기사를⁷⁷⁾ 통해서

68) 《慶北佛敎》 20호(1938.1.1.), 3면 「謹賀新年」. 해당 면에는 명성여자학교도 근하신년 축전을 실었다.

69) 《慶北佛敎》 13호(1937.10.15.), 「全鮮」青年佛從에 時局善處를 絶叫 -朝鮮佛敎青年總同盟에서」

70) 김광식, 「朝鮮佛敎女子青年會의 창립과 변천」, 『한국근현대사연구』 7, 한국근현대사학회, 1997. p.129.

71) <자유신문> 1946년 11월 11일자 2면, 「明星女校 정식인가」. 이 기사에 따르면 해방 이후에야 법인을 만들기 위한 출자가 시작되었다.

72) <동아일보> 1938년 4월 8일자 2면, 「陽曆으로 舉行되는 釋尊降誕記念」. ; 《慶北佛敎》 37호(1940.8.1.), 「朝鮮佛敎와 緣故 箕棼 明星學校의 曙光」

73) <동아일보> 1939년 12월 15일자 2면, 「明星學校職員, 生徒 三十二圓五錢同情」.

74) <동아일보> 1936년 5월 17일자 2면, 「취미振振한 全種目 婦人의 假裝行列」.

75) <동아일보> 1938년 5월 18일자 2면, 「大會參加學校」. ; <동아일보> 1939년 4월 29일자 2면, 「大望의 私立小學校聯合大動會」.

76) <동아일보> 1940년 3월 16일자 2면, 「明星女學校 入試合格發表」. ; 《慶北佛敎》 37호(1940.8.1.), 「朝鮮佛敎와 緣故 箕棼 明星學校의 曙光」.

77) 《경향신문》 1946년 11월 13일자 2면, 「明星女校女中으로」을 보면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재원을 길러냈다는 내용이 있다. ; 《자유신문》 1946년 11월 11일자 2면, 「明星女校 정식인가」.

도 학교 운영이 중단 없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해방 10여년 이전부터는 사회운동단체의 사업의 일환이나 불교포교를 위한 기관이 아닌 정식 학교로서 그 운영 자체가 주요 목적이 되어 교육계와 사회와 교류하는 공간이었을 것이다.

IV. 결어 : 명성여학교의 불교교육사적 의의

지금까지 개화기 여성불교운동의 양상을 근대교육기관인 명성여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명성여학교의 설립은 근대 불교교육사에 있어 몇 가지 의의를 지니고 있는데, 민족관, 종교관, 여성관과 같은 근대 의식 형성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도출해보았다.

먼저 민족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명성여자실업학원이 개교한 1930년대는 불교계의 청년단체들의 활동이 부진해지면서 이전에 비하여 독립운동의 기상이 쇠약해지던 시기였다. 명성여학교 역시 독립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흔적을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학교 인가 당시 교장이었던 만당의 최범술의 성향을 고려해보면 분명 학교운영에 있어 민족자주의식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1930년대 중후반 이후 민족의식 중심의 불교 청년운동의 기세가 꺾이면서 명성여학교의 민족관 역시 대세를 따라 흘러갔을 것이다. 그러나 1941년 민족교육으로 인하여 폐교에 이르렀던 통도중과⁷⁸⁾ 같은 사례를 보면, 당시에도 불교계의 민족운동의 명맥은 이어지고 있었다. 그에 비하면 명성여학교의 경우는 일제 말기 식민지 통제책의 구도에 크게 저항하지는 못 하였으나⁷⁹⁾ 해방 직전은 일제의 침략과

78) 김광식, 「통도중의 민족교육과 폐교 사건」, 3.1운동 100주년기념 호국불교연구 학술세미나: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 불교사회연구소, 2019.

79) 《삼천리》 제14권 1호, 1942년 1월 1일, 「我校의 女學生 軍事教練案」. 이 기사에서는 군사교육에 대해 의견을 밝힌 인터뷰에 응한 자로 明星女學校長 月村水先이 기록되어 있는데, 金水先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창씨개명만으로 민족의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1940년 창씨를 강제한 이후 교원들은 일본식으로 개명을

약탈이 극에 달했던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는 등 교육령 개정을 통해 내선일체를 꾀하였던 시기였다.⁸⁰⁾ 때문에 명성여학교의 민족관에 대한 평가는 식민지의 엄중했던 시대 상황 속 법인이나 단체의 보호 없이 조선 여성들 위주로 운영되던 학교의 처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 살펴보면, 불교계 전체의 민족운동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 종교계의 경우처럼 외국의 선교사와 같은 외부 세력과 자본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전통종교인 불교를 신앙하던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였다는 자주성에 있어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특히 합교한 기독교 계열 승동여학교에 비하면, 여학교를 중단 없이 유지했다는 것만으로도 교육을 통한 민족여성 인재양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종교관을 살펴보자. 앞서 학교 이전 문제에서 드러났듯이 명성여학교와 불교계와의 관계는 계속 이어졌다.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위한 준비협의회에 참여한 것을 보면⁸¹⁾ 불교 신행활동 역시 꾸준히 이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차원에서 불교의 여성관 등에 대하여 탐구하고, 불교 교리 상의 여성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포교를 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교육이 우선이었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불교포교의 내용 정도였을 것이다. 이웃종교와의 관계는 1934년 합교한 승동여학교가 기독교 계열이었기에 병합과정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였으나 사료의 부족으로 여의치 않았다. 당시 승동여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웠다는 점과 또한 1935년에는 비종교계였던 창명학교와 자하학원도 명성여학교로 흡수된 점을 고려하면 불교계가 기독교계 학교를 인수했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사정이 어려운 학교를 인근의 명성여학교가 인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었다.

80) 이만규, 『조선교육사』, 살림터, 2010, p.630.

81) <동아일보> 1936년 5월 21일자 2면, 「佛誕祝賀 準備協議會」.

것이다. 특히 근대 시기는 개항으로 인해 이웃 종교를 처음 접한 시기로 일반 개인들이 차별화된 종교관을 가지기 어려운 시기였다. 여학교 운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투철한 신앙심의 탐구보다는 기본적인 신행활동 위주의 종교관과 불교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관을 살펴보자. 명성여학교의 설립과 초기 운영 과정을 통해 당시 불교계 여성운동은 남성을 중심으로 한 기존 운동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미 조선불교청년회라는 단체가 있었음에도, 여자청년회를 별도로 개설한 것은 남성과 다른 존재로서 여성을 주체자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성단체의 일원도 출가한 승려가 아닌 재가불자여성들이었다. 초기 여자청년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김일엽 같은 인사들이 출가한 이후에는 여자청년회와의 연대 활동이 보이지 않다는 점도 눈에 띈다. 개신교 여자 선교사가 설립한 이웃종교의 여학교와 비교해보아도 명성여학교는 재가여성불자 위주로 운영되었다. 교육의 주요 대상 역시 여성성직자가 아닌 재가여성불자였다. 다만 남성들과의 연대에는 큰 거부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가한 여성보다는 계몽된 남성들에게 좀 더 동지적 입장을 취한 것이다. 1910년대 이후 남녀 평등사상을 갖춘 민족주의자가 여성계가 가졌던 보편적인 이상적 여성관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당시 독립적인 활동과 단체 구성력이 미약했던 여성 출가자보다는 비슷한 세계관을 가진 남성들을 가까운 존재로 여기고 연대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당시 남성 출가자와 재가신도들로 구성된 조선불교청년회는 민족운동 및 사회문제와 불교개혁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지만, 반면 여자청년회는 여성재가불자들의 교육함양에 힘썼다. 학교설립의 동력이 되었던 단체들이 유명무실해 질 때에도 학교운영은 지속되었다. 그리고 그 후신인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고등학교는 불교계의 대표적인 종립학교이자 여자학교로 자리매김하였다. 개화기와 해방 이전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불교여성교육에 힘썼던 과거가 있었기에 맞이할 수 있는 오늘의 현실일 것이다. 명성여학교의 설립과 운영은 여성교육에 대한 불교계의 사회적 의식을 전환하고, 불교 여성들의 근대 의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것이다.

그동안 학교 측에서도 잘못 알고 있던 초기 연혁에 대하여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교정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그러나 사료의 부족으로 밝히지 못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초기 명성여학교의 주체였던 여성들에 대한 연구와 조망은 계속 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여성들이 드러날 때, 한국의 불교여성운동사와 근현대사가 더욱 입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 연구가 향후 근대 종교계 사립학교 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고병철, 『한국 중등학교의 종교 교과교육론』, 박문사, 2012.
- 고영섭, 「동대 ‘전인 교육’ 백년과 ‘불교 연구’ 백년: 치밀한 사고력. 활달한 문장력. 넘치는 인간미의 구비와 실현」, 『불교학보』 45, 불교문화연구원, 2006.
- _____, 「불교계의 해인 -마산대학(1946~1967) 경영」, 『한국선학』 22, 한국선학회, 2009.
- 김경집, 「일제하 30본산의 평양포교」, 『전법학연구』 9, 불광연구원, 2016.
- 김광식, 「朝鮮佛敎女子靑年會의 창립과 변천」, 『한국근현대사연구』 7, 한국근현대사학회, 1997.
- _____, 「각황사의 설립과 운영」, 『대각사상』 6, 대각사상연구원, 2003.
- _____, 「명진학교의 건학정신과 근대 민족불교관의 형성」, 『불교학보』 45, 불교문화연구원, 2006.
- _____, 『불교 근대화의 이상과 현실』, 선인, 2014.
- _____, 「통도중의 민족교육과 폐교 사건」, 3.1운동 100주년기념 호국불교연구 학술세미나: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 불교사회연구소, 2019.
- 김광식 외, 『韓國近現代 佛敎資料全集』, 민족사, 1996.
- 김광호, 「佛敎와 女性의 信仰」, 『佛敎』 67, 佛敎社, 1930.
- 김두현, 「迷信과 文化」, 『佛敎』 107, 1932.
- 김순석, 「統監府 시기 佛敎界의 明進學校 설립과 운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 김윤성, 「1920~1930년대 한국사회의 종교와 여성 담론: ‘미신타파’와 ‘현모양처’를 중심으로」, 『근대한국종교문화의 재구성: 근대성의 형성과 종교 지형의 변동 II』,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 _____, 「여성과 종교에 대한 근대적 담론의 한계와 효과」, 『종교문화비평』 1,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2.
- 김은영, 「근현대 불교계 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특성과 과제」, 『불교학보』 87, 불교문화연구원, 2019.
-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법사단, 「설립자와 학교 소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여자중·고등학교」, 『선지식』, 2005.

- 박혜란, 「1920년대 여성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pp.166-175.
-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사, 1885~1945』, 연세대학교출판부, 1992.
- 이만규, 『조선교육사』 下, 을유문화사, 1959.
- 이송희, 「한말, 일제하의 여성교육론과 여성교육정책」, 『여성연구논집』 16, 여성문제연구소, 2005.
- 이윤수, 「여성불교운동의 흐름과 과제」, 『불교평론』 13,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2.
- 정영희, 『개화기 종교계의 교육운동 연구』, 해안, 1999.
- 지일, 「家庭」, 『불교』 3, 1924.
- 채정복 편, 『효당 최범술 문집 1권: 논문·기고문·연보』, 민족사, 2013.
- 퇴경, 「불교와 여자」, 『조선불교월보』 4호, 조선불교월보사, 1911.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기독교문사, 1997.
- 홍양희, 「일제시기 조선의 여성교육: 현모양처교육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5,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1.

Abstract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Myeongseong Women's School
- The First Buddhist Women's School in Modern Period -

Kim, Eun-young
(Associate Researcher,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at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Buddhist community's consciousness and capacity for women's education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through Myungsung Women's School, which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by the Buddhist community before the lib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deology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odern Buddhist women's educational institutions is as follows. First, it clarified the subject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yeongseong Women's School, revealing the social atmosphere at that time and who influenced Buddhism women's school education. Second,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yeongseong Women's School was related to the formation process of modern Buddhist women's awarenes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yeongseong Women's School has several points in the history of Buddhist education. In particular, it is significant in the self-reliance of women who have believed in Buddhism and did not rely on outside forces and capital such as foreign missionaries. They established and operated the school as the central operating body of the Korean traditional religion. Myeongseong Women's School changed its social consciousness to female Buddhist education.

Key words

Education for Women, Myeongseong Women's School, Modern Period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Buddhist Education